## 시 론

탁 인 석
광주문인협회 회장

# 한반도의 첫 수도는 마한이었다

엊그제 광복절을 맞았다. 가정마다 관공서마다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통계가 없다. 태극기 달기는 거국적으로 새길수록 그 의미가 크다. 태극기는 민족의 얼이며 혼이며 자존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힘들고 정치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제1·2·3 당 모두 비대위 체제인 걸 보면서 이게 정상인가 싶다. 정치가 국민을 선도하고 바른 국정을 조타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는 현실이다. 하긴 국난이 있을 때면 민중(의병)이 나서서 국가를 지켰던 예가 한두 번인가.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일을 우리는 광복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8·15 광복절은 일제 36년을 청산하고 되찾은 주권 회복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치광복의 의미가 우선이고 그에 따른 역사 광복과 문화 광복도 함께 하는 일이다. 깡그리 말살될 뻔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고 감격스럽게도 경제 부흥의 자랑스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늘이 우리민족을 돌본 몇 차례의 천운이 있었다. 우리의 생활터전인 호남을 보자. 지금의 호남은 안타깝게도 정치적 맹주가 없다. 거기에다 여러 분야의 지표 또한 참으로 난감할 만큼 지지부진하다. 기업들이 활발해야 일자리와 먹거리가 만들어질 텐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대학들은 당초의 목적인 인재 양성에는 뒷전이고 학생 모집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충청·강원·제주도 등지도 수도권에 포함하고 영남은 영남만의 독자 세력화한 부울경이 메가시티로 존재한다. 전북 또한 준 수도권이라고 하니 광주전남만 외도토리 신세다. 이번 칼럼은 이 외로움을 달래줄 꿀팁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우리 지역 호남은 '한반도의 첫 수도'였었다. 무슨 말씀인가 하실 것이다. 우리 국토에서 한반도로 국한하는 것은 소극적 개념이고 광활한 만주 땅을 포함할 때 원래의 개념에 합당한 것이다. 허나 언제부턴가 한반도로 굳어져 버린 국토가 한반도의 본래인 것처럼 인식됐다. 광주나 한반도에서 기억하는 첫 번째 나라가 마한이다. 마한은 한반도 서쪽의 중남부에 위치하였고 변한, 진한과 길항한 거대 세력이었다. 그리고 마한이 진한, 변한의 왕을 겸하였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부산에서 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마도(對馬島)도 마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북쪽으로 고조선이나 부여가 있었지만 이도 우리 민족임은 물론이다. 허지만 그 지역이 한반도 북쪽을 걸친 만주 땅이 주 무대였다. 한반도로 국한하면 마한이 국가체제를 갖춘 첫 번째 정치세력이고 군왕의 금동관이 국보 제295호로 지정돼 국립나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이를 보면 당시 권력자의 위엄과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마한은 호남에 위치하면서 한반도의 첫 수도라는 자존성과 존재감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BC1세기부터 AD3세기에 전라도를 중심에 둔 충청 경기지방에 분포한 여러 나라의 이름이었다는 말이다. 영산강은 이 유역에서 출토된 대형 고분과 갖가지 유물들이 당시 마한문화의 발상지임을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다.

축소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담대한 선언에는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역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시작 한다치면 우리 역사는 2천년밖에 안 된다. 이리 되면 이집트 피라미드가 4천5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 우리와는 맞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슬러 반만 년이라면 기존의 우리 역사와 얼추 맞는 숫자다. 배달민족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따른 역사는 잊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배달의 역사를 삽입해야 반만년이 되고 이는 중국 삼황오제 황하문명보다 앞서고 이집트 문명과 비슷하며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동일한 세월이다. 일본 역사 따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배달에서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로 역사의 흐름을 잡는 것은 상식이다. 한민족 역사의 국통맥(國統脈)을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이다. 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는 힘 있는 독지가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아직은 감감무소식이다. 통 큰 역사를 확립하고 결단하는 데는 이를 주도할만한 지성적 노력과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 오늘도 영산강은 바다를 찾아 흐른다. 800년 마한의 역사를 지켜봤던 강이다. 그 강이 강보처럼 감싸고 흐르는 나주일대를 한반도 첫 수도라 하여 무리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 기 고

퇴 허 자
광주대각사주지·제주퇴허자명상 원장

# 광주 대각사를 아시나요?

불가(佛家)에서는 예부터 삼보(三寶)라 하여 3가지 보물을 말하고 있다. 불법승(佛法僧) 곧 부처님과 팔만사천 법문과 출가수도하는 스님을 일컫는다. 절에 가서 3번 절하는 삼보삼배(三寶三拜)의 예는 불법승에 대한 예절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예절이지만 가끔 모르는 이들이 왜 절에 가면 세 번의 절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소개를 한다.

광주 봉선동 제석산(帝釋山)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사는 21교구 송광사(松廣寺)의 말사이며 옛 백제말엽에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당시에는 부처골 '불로절'이라 불리었는데 화재로 소실된채 내려오다가 1943년 홍각운 화상에 의해서 중창복원되었다. 그 후 1983년 봄에 현 주지 퇴허자 도산스님이 부임하여 "나누지 않음이 바로 가난이요, 어려운 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주를 돕는 보시행이다"는 수행목표를 정하고 가정불교와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실천불교의 차원에서 사회복지 장애인시설 '호산마을(화순군 도암면)'을 개창 25년을 운영해 왔다.

지금 현재 봉선동 '제석초등학교'나 '불로초등학교'등의 명칭은 모두 대각사와 관련이 있어 지어진 이름들이며 매일아침 제석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나 대각사 산정약수(山精藥水)를 찾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더없이 고마운 성지에 대각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대각사에서 40여 년을 머물면서 생각한 것은 '깨달음의 사회화'이다.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 좋아도 절에만 머물러 있다면 불교의 참모습인 전법도생(傳法度生)의 중생교화를 외면한 것이다. 사부대중의 스승인 석가모니는 녹야원 전법을 비롯하여 구시나가라 열반에 드실 때 까지 일생을 포교전법에 바쳤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다시 한번 원력(願力)을 세워 제주 성산읍 신풍리에 포교전법도량인 '퇴허자명상원'을 2012년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모두가 광주 제석산 대각사의 법력이다.

만사만행은 인연소생(因緣所生)으로, 인연 따라 이뤄지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는 삼불능(三不能)이라 하여 인연없는 곳에 갈수 없고(처소불능), 인연없는 법문(강의)들을 수 없으며(청법불능), 인연 없는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것(대면불능)이라 하였다.

메어리 리치몬드가 말했듯이 "인간은 환경속의 존재(PIE)이다." 인간은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속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환경밀착형의 존재라는 뜻이다. 모든 종교는 그 중심에 성현들이 아닌 중생이 존재할 때 그 빛을 발한다. 따라서 종교는 '중생의, 중생에 의한, 중생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다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종교가 분열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패악(悖惡)을 조장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단군신앙의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은 그런 뜻에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훌륭한 실천철학이요 생활종교임을 알 수 있다.

차제에 한 가지 첨가할 것이 있다면 대각사의 원력으로 설립된 제주 퇴허자명상원이 좀 더 발전하여 '국제명상센터'로 거듭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실현하고자 뜻을 함께 할 동지를 찾고 있다. 제주는 누가 뭐라 해도 천혜의 보물섬이며 지구촌의 요새이다. 국제적인 무대라 할 수 있는 제주도에 국제명상센터가 설립된다면 몽고의 달라이라마나 틱낫한 스님과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명상의 세계적인 무대가 탄생할 것이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한 발자국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천년고찰 광주 부처골 대각사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중생교화에 앞장서는 전법도량으로서 손색이 없는 실천불교의 중심적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

##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벌에 쏘였을 때 대처 요령

일반적으로 벌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벌을 공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활동만으로도 자극을 받아 공격을 하는 벌은 흔히 말벌이다. 그중에서도 노랑말벌은 알러지 반응을 가장 많이 일으킨다.

벌에 쏘였을 때는 국소적인 반응으로 쏘인 부위 주변이 붓는다. 이어 통증이 나타나며 대부분 이러한 증상이 며칠 지속되고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말벌에 쏘였을 경우와 알러지 반응이 심한 사람은 예외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울렁거림, 구토, 설사 등이며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벌독에 의한 사망 시간은 79%가 벌 쏘임 후 1시간 이내였다. 신속한 119 신고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하는 대목이다.

일부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혈압이 하강하고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복통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의식 저하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벌에 쏘일 경우 대처법으로는 우선 환자가 추가적으로 벌에 쏘이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말벌 침의 구조상 독침이 피부에 남지 않으므로 핀셋, 카드 등으로 침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쏘임과 동시에 통증 부위를 즉시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환부를 씻어 통증과 독의 확산을 지연시킨 후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 시설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알러지 반응으로 호흡 곤란이나 혈압 강하 소견이 관찰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김정훈·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이다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의하면 올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총 1만2천401건으로 그 중 1만1천689명을 검거했다. 피해 규모는 월 평균 511억으로 전체 피해액은 3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 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를 뜻한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나 금감원 등 기관 사칭하여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편취 행위 등 다양한 수법에 의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언론이나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기유형에 대해제대로 알고 대처하여야 피해보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창희·곡성경찰서 경무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社 說

#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 유출 막는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앞날이 여전히 깜깜하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마땅찮으며 취업의 질마저도 떨어진다는 하소연이다.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떠나가도 속수무책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자 수는 25만5천명이다. 이는 2019년 7월(29만8천명) 대비 4만3천명(14.4%)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923만3천명에서 1천7만명으로 83만7천명(9.0%)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압도적으로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간 단위로 살펴봐도 광주의 대졸 이상 취업자 수 감소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9년 광주의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30만2천명에서 2020년 29만1천명, 2021년 27만명으로 3년 연속 줄었다. 3년 동안 3만2천명(10.5%)이나 급감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전국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2019년 920만5천명, 2020년 929만6천명, 2021년 956만6천명으로 3년 새 3.9% 늘었다.

낮은 청년 고용률도 취업자 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광주시의 청년고용률은 39.2%로 전국 평균 47.3%에 턱 없이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인천(50.8%), 대전(47.0%) 등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고용률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마저 찾기 힘들자 낮은 임금·처우 등으로 예전처럼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으로 광주지역 청년들의 구직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층의 역외 유출로 직결된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 결국은 수도권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한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지역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의 산업계는 물론 행정기관·대학·사회단체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급한 시기이다.

# 한전의 '적자행진' 해소대책 시급하다

한국전력의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최근 지난 2분기 영업손실이 6조5천억원을 넘었으며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4조3천여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도 역대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2분기 적자는 지난해 적자액인 5조8천601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전력 판매량이 늘고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됐지만,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전의 상반기 매출액은 31조9천92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5% 늘었지만, 영업비용은 46조2천954억원으로 60.3%나 급증했다.

한전은 대규모 영업손실에 따른 재무 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그룹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6조원 규모의 부동산, 출자지분, 해외사업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자구책만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안팎의 여론이다.

때문에 한전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가 7% 가까이 치솟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우려, 전기 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게다가 한전은 올해 들어서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린 바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연초부터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10만여개가 넘는 발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산자부가 법제처에 요청한 SMP 상한제 안건 심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을 올리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요금을 낮추는 식의 연료비 연동제가 현실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n분의 1로 부담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적자 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기업 파티가 끝났다느니, 부채를 줄인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느니 등의 표피적 방안이 아닌 구조적으로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 그래픽 뉴스

# 조세회피처 자금 국내 유입 급증…케이맨제도 韓투자액, 美 이어 2위

올해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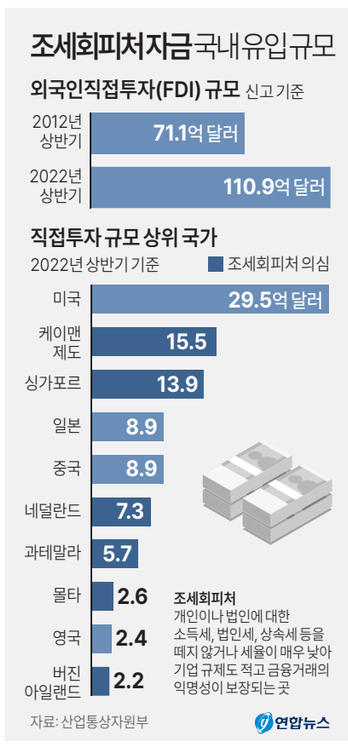
또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와 지중해 섬나라 몰타, 카리브해 섬나라 버진아일랜드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미미한 곳들이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 110억8천600만달러(약 14조4천억원)이며 이 중 케이맨제도에서 투입된 자금이 15억4천6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천600만달러)에 이어 2위였다.

미국과 케이맨제도 다음으로는 싱가포르(13억9천만달러), 일본(8억9천300만달러), 중국(8억8천8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네덜란드(7억3천100만달러), 과테말라(5억7천100만달러), 몰타(2억6천400만달러), 영국(2억4천4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2억2천100만달러)도 10위권에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보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對)케이맨제도 수출액은 284만달러 수준으로 전체 교역국 중 184위였다. 우리나라 수출 184위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국내에 큰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